



상고대 핀 한라산 을 가을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4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한라산에는 진눈깨비가 날리며 상고대가 피어 등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희만기자

## 행정체제·구역개편 관건은 도민 공감대

제주도의회 어제 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행정구역 조정필요성 부각

잠잠했던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 동력이 될 도민공감대 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특별자치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하는데 법논리로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꼬집었다.

선명해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은 "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 시장 직선제를 하지는 것"이라면서 구역 설정은 현행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시장직선제만 고집할게 아니고 풀뿌리 자치로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함께 병행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중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재설정을 전제로 할 경우 행정 절차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송 국장은 "통합보다 어렵게 분할이다. 분할 경계에 따라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시장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된다"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민의 합치된 의견을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달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 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행 체제 유지안(시장 임명 및 기초

의회 미설치)와 행정시장 직선제안(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설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다.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제 발표에서 시장의 주민 책임성 약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 참여 약화 및 주민 참정권 박탈,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의 대응성 저하, 도지사의 존도 심화(제왕적 도지사) 등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은지기자

## 제주중소기업 지난달 체감경기 호전

지난달 제주내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4일 발표한 '10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업황전망지수는

51로 전월대비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주지역의 업황전망지수는 전국 업황전망지수(74)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제주 49·전국 79)과 비제조업(제

주 52·전국 69)이 각각 30p, 17p 하락했다.

업황전망지수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기준치인 100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좋게 인식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

이다. 업황지수는 지난 4월 27에서 5월 29, 6월 37, 7월 46, 8월 48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37로 하락한후 10월 51로 반등했다.

매출지수(56)는 전월대비 9p 상승했고 11월 매출전망지수(54)는 전월대비 6p 상승했다. 채산성지수(65)와 채산성전망(63)도 전월대비 각각 8p, 7p 올랐다. 고대리기자

## '팬데믹과 인본안보' 제주포럼 개막

5~7일 롯데호텔서 개막  
문 대통령 영상 기조연설  
세계정상급 석학 등 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생중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5일 개막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제주포럼은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를 주제로 선정해 인류가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구상 방안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포럼 첫째날인 5일에는 미래세대인 청년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준비됐다. 이날 '제주포럼 청년 DAY'로 지정하고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이어 '평화'를 주제로 기성세대와 청년 간 소통을 위한 'JDC 청년평화 토크쇼'도 개최된다.

특히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도 이어진다.

또 올해 제주포럼에는 세계 정상

급 인사와 석학, 저명인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6일 전체세션에는 1996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 회담의 주역 빌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고충룡 전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팬데믹 시대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해야 할 새로운 다자협력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주포럼의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자이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함께 '이타주의', '다자협력', '인본안보'의 키워드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인간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그 밖의 주요 인사로는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있으며 김숙 전 UN 대사 및 현 주한 대사 다수가 6일 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제주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2020 제주포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과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아동학대 예방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도·교육청·경찰청 등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청·경찰청·유관기관·행정시 간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사전 발굴 시 스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9월 구성됐다.

전담기구에는 도보건복지여성국장,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행정시 복지위생국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도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가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행정시에서는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합니다.

#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숨결 지하수, 제주의 미래!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물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과 비양심적인 오염 배출로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지하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이용 가능한 양의 91%까지 지하수가 개발되었으며 일부지역은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 화학비료 과다 사용 등 오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지하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상수도, 농업용수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소중히 사용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일반인**

상수도,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하수 오염관리 및 물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숨결이며 제주의 미래입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